

개혁신당, 조국 창당선언에 “내로남불” “제2의 방탄 정당”

조웅천 “선고 닷새만에 창당 선언…개인 명예회복 도구화” 금태섭 “권력있을 때 검찰을 역사상 최대로 만든 사람”

제3차대 통합당인 개혁신당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을 두고 “내로남불” “제2의 방탄 정당”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조웅천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닷새만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며 “조 전 장관 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방탄조끼로 전락하는 민주당에 이은 제2의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개인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이자 개인의 사법처리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연결시키는 방탄 신당”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 전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일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가기는커녕 ‘조국의 늪’에 빠져 조국 정당이란 것을 탄생시켰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혈세를 도둑질하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민주, 개혁 그리고 진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좋다는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 위선과 내로남불은 이제 보낼 때가 됐다”고 보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후퇴 시킨 장본인”이라며 “지금은 검찰의 힘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검찰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로 만들었다”고 문제 삼았다.

금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특수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직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나고 본인 수사 받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검찰의 정치화가 극



심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운동권 출신 병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당시 검사들이 정치권과 또 조국 민정수석 주위에 줄을 대고 다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들이 생기자 친윤검사를 좌천시키고 반윤검사 등용, 검찰 내 공중압투가 따로 없는 걸 만든 장본인

이 조 전 장관”이라며 “그 검사들이 지금 정치권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검사들도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 최고위원은 “더 큰 잘못은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본격화했다는 것”이라며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면서도 자신들의 말에 반대하면 친일파, 기독교, 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배척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라고 탄압하는 민주당 수박공세의 출발점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인 개혁신당은 달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변화, 대한민국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정공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면기자



민주 “이해찬에 선대위원장 제안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에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원장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아직 선대위 구성, 인선 관련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심사도 초기 단계도, 야권 비례연합정당도 첫 삼을 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 그대로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기구인데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이 다음 달 말”이라며 “당에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8일 시작된다. 공천 심사 진행 상황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민주당은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선대위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용일기자

윤, 외국인투자기업 만나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한국’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7억 달러의 투자에 나서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 금융·노동·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산업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한불상공회의소와 서울재팬클럽 등 주한 각종 상공회의소 대표와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코리아 대표,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 등 외국인

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